

# ‘매출급감’에 손님 발길도 끊겼는데 소상공인 대표 단체는 호화 송년회

소상공인聯, 호텔에서 ‘송년의 밤’  
1인당 만찬 식대만 10만원 ‘홀쩍’  
300여명 참석, 1·2부 강연 예정  
일부 반대에도 위약금 비싸 강행

소상공인 관련 유일한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가 밥값만 1인당 10만원이 훌쩍 넘는 서울시내 최고급 호텔에서 송년 행사를 준비하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내수침체 장기화에, 탄핵 정국까지 겹쳐 내수가 순식간에 얼어붙으며 연말 특수가 사라져 소상공인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 상황에서 소상공인 대표 단체가 호화판으로 행사를 여는 것을 놓고 일부에서 우려의 시각을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오는 17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에서 ‘2024 송년의 밤’을 개최할 예정이다.

참석자 소개부터 만찬까지 오후 3시부터 약 5시간 반 동안 진행되는 행사에는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300명이 넘는 인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다만 오 장관의 경우 국정이 엄중한 상황이라 직접 자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소공연이 이날 진행하는 행사의 만찬 식대는 1인당 약 12만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소상공인연합회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비상계엄 선포와 대통령 탄핵 결정으로 나라안이 어수선해 연말 대목이야 할 소상공인 경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가게마다 손님이 줄어 울상인 소상공인 현실을 감안하면 대표 단체가 호화롭게 행사를 열기보다 자중했어야 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전했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소공연 내부에선 행사 취소 목소리도 일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호텔에서 진행하는 대규모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재표결이 가결된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모인 시민들이 기뻐하고 있다. /뉴스1

행사를 취소할 경우 위약금이 비싸 강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행사도 1부 ‘강연’과 2부 ‘송년의 밤’으로 나눠 진행하기로 했다.

페어몬트 앰배서더 관계자는 “대규모 행사다보니 임박해서 취소할 경우엔 연회장을 다시 팔지 못하고 (음식 준비 등)발주에도 문제가 있어 고객은 규정에 따라 위약금을 내셔야 한다”고 전했다. 취소하면 70% 가량의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공연에 앞서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송년 행사를 진행한 벤처기업협회의 경우 1인당 약 8만2000원,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행사를 연 이노비즈협회는 1인당 약 8만5000원의 식대를 쓴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소공연이 지난 12일 발표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소상공인 경기전망 긴급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 소상공인 10곳 중 9곳은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매출액과 손님이 모두 줄었다.

조사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소상공인 1630명 가운데 88.4%는 비상계엄 사태 이후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했다.

매출이 절반 이상 줄어든 곳이 36%로 가장 많았다. 이어 매출액 ‘30~50% 감소’ (25.5%), ‘10~30% 감소’

(21.7%), ‘10% 미만 감소’ (5.2%) 순이었다.

또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한 소상공인(1441명) 가운데 줄어든 매출액은 100만~300만원이 44.5%로 가장 많았다. 감소액이 ‘300만~500만원’은 29.1%, ‘500만~1000만원’은 14.9%였다.

특히 지난 일주일간 매출이 ‘1000만원 이상 감소했다’는 소상공인도 11.5%에 달했다. ‘2000만원 이상 감소’한 곳도 5.4%였다.

음식점 등을 찾는 고객도 눈에 띄게 줄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소상공인 89.2%는 사업장 방문 고객이 감소했다고 답했다. 연말 장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1.9%는 경기전망을 ‘매우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28.2%는 ‘다소 부정적’이라고 전했다. 90.1%가 경기 전망을 어둡게 보고 있는 모습이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해지 이후 소상공인들이 겪는 경영상 어려움을 알아보기 위해 10일부터 12일 사이 진행했다. 조사에는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개인서비스업 등에 종사하는 전국 일반 소상공인 총 1630명이 참여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 질소산화물 규제 강화 우려 시멘트업계, 기준 완화 촉구

9개 공장 책임자 ‘공동입장문’  
“SNCR 설비 기술 고도화해 운영”  
시멘트協 7개사 대표들도 성명  
“생산 활동에 막대한 지장 초래”

시멘트업계가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환경규제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점점 높이고 있다.

전방산업인 건설경기 침체로 가뜰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규제 강화로 어려움을 호소하면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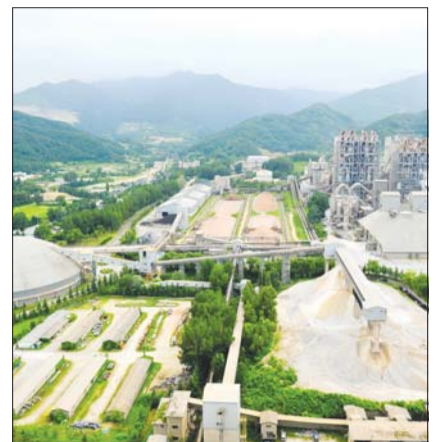
15일 시멘트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시멘트사 9개 생산공장 책임자들은 ‘질소산화물(NOx) 배출규제 기준의 완화를 요청하는 공동 입장문’을 지난 13일 발표했다.

입장문에서 이들은 고효율 질소산화물 저감시설의 기술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규제 수치 강화를 유예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지난 9월 13일 충북 지역 시멘트업체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2025년 135ppm에서 2029년 110ppm까지 단계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내용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생산공장 공장장들은 “시멘트 생산과정 중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의 적극적인 감축과 고효율의 질소산화물 저감 시설 도입 모두 동의하지만, 이미 도입해 적용 중인 독일 등 글로벌 시멘트업체에서는 기술적 불안정성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해외보다 2~3배 이상 크고 고집적화된 국내 시멘트 공장에 적용한 사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타 산업의 운영 사례만을 참조해 설치를 추진한다면 설비의 안정성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건설 현장에 필요한 시멘트를 적기 공급할 수 없으면 시장 상황을 예측해 시의적절한 생산계획을



시멘트업계가 질소산화물(NOx) 배출규제 기준 완화 요청 등 강화되고 있는 환경규제를 놓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 시멘트공장 전경.

수립해야 하는데 고효율 저감 시설의 기술적 불안정성이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며 “관련 기술의 안정성이 확보될 때까지 현재 적용 중인 SNCR 설비 기술을 최대한 고도화해 운영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공장장들은 대기관리권역법(충북지역)상 2029년 최적방지시설(BACT) 기준 농도를 현재 적용 중인 SNCR(선택적 비촉매 환원법) 설비 기술의 고도화를 통해 실현할 수 있도록 120ppm으로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앞서 한국시멘트협회 소속 7개 회원사 대표들도 지난 9월 공동성명서를 내고 “우리나라의 고집적된 대규모 시멘트공장에 적용된 사례 없이 다른 산업의 운영사례만으로도 고효율의 질소산화물 저감시설을 설치해야 하만 가능한 수준으로 질소산화물 배출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것은 결국 시멘트 생산 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현재 적용 중인 SNCR 설비 기술을 최대한 고도화해 실현할 수 있는 배출규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명서에는 삼표시멘트, 쌍용C&E, 한일시멘트, 한일현대시멘트, 아세아시멘트, 한라시멘트, 성신양화가 이름을 올렸다.

/김승호 기자

# 이노비즈協, 기술혁신형기업 금융 솔루션 지원

IBK기업銀과 자금조달 등 혜택 제공

이노비즈협회가 IBK투자증권과 손잡고 기술혁신형기업을 위해 맞춤형 금융 솔루션을 지원한다.

이노비즈협회는 IBK투자증권과 ‘이노비즈기업 육성 및 지속성장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양측은 업무협약을 통해 ▲혁신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통한 이노비즈기업 육성 ▲이노비즈기업 자금조달 지원 및 금융우대 혜택 제공 ▲IPO 추진 등 직접금융 시장 참여 지원 및 투자 활성화 ▲기업 맞춤형 재무·ESG 컨설팅 및 리서치 세미나 지원 ▲이노비즈기업 육성 및 성장을 위한 협력사업 등에 함께 나선다.



정광천 이노비즈협회장(오른쪽)이 서정학 IBK투자증권 대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노비즈협회

IBK투자증권은 이노비즈기업의 기업공개(IPO) 추진 및 자금 조달 지원 뿐 아니라 자금 운용 수익성 향상을 위한 금융상품 등을 제안한다. 또 운영자금 확보와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전문 컨

설파 지원을 통해 이노비즈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돕는다.

이노비즈협회는 이노비즈기업과 회원사의 다양한 금융 수요를 파악하고 IBK투자증권이 이를 반영해 맞춤형 금융 솔루션을 지원할 수 있도록 파트너십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광천 이노비즈협회장은 “코스닥 상장 특례 제도 활용 등 이노비즈기업을 위한 단순한 지원을 넘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 협약을 체결했다”면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은 지속 성장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만큼 이노비즈기업과 회원사의 금융 접근성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사업을 개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 코웨이, 침대 수납공간 꽤러다임 바꾸다

‘비렉스 수납형 프레임’ 출시  
다양한 높이 선반·레일형 서랍 갖춰

코웨이가 넉넉한 수납으로 공간 활용도를 높인 수납형 침대 프레임 ‘코웨이 비렉스 수납형 프레임’을 출시했다.

15일 코웨이에 따르면 비렉스 수납형 프레임은 수납공간을 극대화해 실용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헤드보드 상부에 120mm 너비의 선반을 마련해 안경, 핸드폰 등 자주 쓰는 소지품을 수납할 수 있다. 좌우 측면에도 다양한 높이의 선반을 비치해 책, 일상용품 등을 손쉽게 수납할 수 있도록 했다.

속옷, 양말 등 매일 쓰는 아이টে를 수납하는 레일형 서랍 2개와 계절에 따라 정리가 가능한 병커형 수납공간 2개를 탑재해 공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

안전성과 편의성을 고려한 세심한 설계도 돋보인다. 서랍부 레일은 헤켈레사의 고품질 댄핑 언더레일을 사용해 부드럽게 열고 닫으며, 특히 서랍이 빠르게 닫히는 것을 방지해 손 끼임을 예방한다. 헤드보드 상부 선반에는 난연성 소재의 덮개형 콘센트를 배치해 안전하게 전자기기를 충전할 수 있도록 설계했으며 헤드보드에 편안하게 기댈 수 있도록 쿠션형 디자인을 채택했다.

헤드보드는 ▲샌드베이지 ▲스카이 블루 ▲파우더 핑크 컬러로 구성해 부드러운 내추럴 우드 프레임과 함께 침실에 한층 포근한 분위기를 더해준다.

코웨이 관계자는 “넉넉한 수납공간과 내구성, 안전성, 그리고 인테리어 취향에 따른 컬러 선택 옵션까지 갖춰 고객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